발행일 2019. 11. 15
발행처 융합연구총괄센터
2019, November Vol. 5

동향분석 자료집

-일본의 핀테크 현황-

융합연구총괄센터
General Center for Convergence Research

일본 핀테크 현황

◆세계 각국의 신용거래(cashless)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신용결제보다 현금사용이 더 일반화되어 있어 방일 외국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일 외국인의 결제 편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거래를 높이려는 시책들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계는 지금 'Apple Pay'를 비롯한 컨택트리스 결제, 'Alipay'. 'WeChatPay', QR코드 결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일본의 신용결제 마켓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가 신용거래를 추진해야 하는 목적 3가지

일본 정부의 신용거래 추진은 인바운드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현금 처리 비용 감소, 개인의 거래 내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방일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상업 시설, 숙박 시설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100%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일본이 신용거래 후진국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거래를 높여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래 편리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특히 도쿄올림픽 대비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각 매장의 인프라 정비가 급선무

목　　차

1. 금융보안원(2015.9),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
2. KPMG(2016.10), “日本の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
3. 丸山弘毅(2016.11.9) “FinTechの最新動向と 今後の可能性”
4.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2016.12) “핀테크(Fintech) 시장 동향”
5. 服部直樹(2017.6.9.), “広がるFinTech ビジネスの地平” みずほ総合研究所
6. 이광상(2017.11.11),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26권 23호
7. 志波和幸(2018.1.31.),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国際通貨研究所
8. 장우애(2018.4),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5.0>과시사점”, IBK경제연구소
9. 岩下直行(2018.6.30.), “日本におけるFinTechと仮想通貨を巡る最新動向” 日中資本市場ラウンドテーブル
10. 岩下直行(2018.10.1.), “FinTech, 仮想通貨ビジネス の最新動向”
11. 一般社団法人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2019.4), “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2019”
12. 李智慧(2019.6.18.), “中国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と日本への示唆” 野村総合研究所
13. 김보경(2019.8),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제 목	1.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		
연 구 자	금융보안원	발표일	2015.9
개 요	□ 배경 o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사례 분석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부국가 사례에 편중 ※ 그간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핀테크 서비스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서비스는 거의 소개되지 않음 o 이에, 아시아권 유망 핀테크 서비스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社사의 해외 핀테크 사례의 다각도 분석을 지원하고자 함 <결론> o 아시아권의 주요 핀테크기업은 자국 내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진출의 의욕이 강함 - 대부분 서비스가 자국을 중심으로 인도·유럽·미국 시장을 목표로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활발히 접촉중인 것으로 확인 - Ping Pay와 같이 개발은 싱가폴, 서비스는 인도에서 진행되는 제휴사례 존재 o 국내 상당수의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와 관련된 것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폭이 상대적으로 폭넓음 - 각국의 금융환경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성향이 강한 바, 결제이외에도 뱅킹, 투자, 자산관리등에 균형있게 분포 o 블록체인과 같은 전자화폐 기반기술은 화폐영역을 벗어나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 중 <시사점> o 국내 금융권, 핀테크기업도 아시아권의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은 물론 해외진출방안까지 적극적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o 아울러,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관리기법의 경우, 보안수준이 높고 전자화폐 이상의 서비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바 송금·결제는 물론, 보안인증까지 다양한 금융분야의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		

1.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illegible]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

2015. 9.

금융보안원

< 목 차 >

1. 배경 및 대상 ---------- 3

2. 주요서비스

1 Ping Pay (인도/싱가폴) ---------- 5

2 Wing (캄보디아) ---------- 11

3 Otonomos (싱가폴) ---------- 16

4 Bankguard (일본) ---------- 20

5 IDPush (대만) ---------- 23

3. 결론 및 시사점 ---------- 27

- 이효로서 : 핀테크보안팀 조재관 인턴사원(1년 8월) 작성 및 검토 : 핀테크보안팀(1년 9월)

□ 배경

o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사례 분석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부국가 사례에 편중

* 그간 주로 북미에서, 유럽, 중국 등의 핀테크 서비스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서비스는 거의 소개되지 않음

o 이에, 아시아권 유망 핀테크 서비스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핀테크사례의 다각도 분석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대상

o 아시아 권 핀테크 금융 및 금융보안 분야 5개 서비스

- (금융서비스) 송금 · 주식거래 분야 3개 서비스

- (보안서비스) 본인 및 거래 인증 2개 서비스

* 벤치마킹을 분석해야 주목받는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등을 검토하고 핵심서비스를 분석 (검토는 세부내용은 2P의 < 참고1 : 아시아지역 주요 핀테크 서비스 목록 > 참고)

구분	업체명	국가	분야	주요 서비스
금융 서비스	Fastcash	싱가폴	송금	소셜 서비스 활용형 송금 플랫폼
	Wing	캄보디아	송금	휴대폰기반 송금서비스
	Otonomos	싱가폴	주식거래	블록체인기반 전자주식 발행 및 관리 플랫폼
보안 서비스	Bankguard	일본	인증	그림으로 구성된 난수 보안카드
	IDGate	대만	인증	거래내역 확인 인증

금융보안원

< 참고 1 : 아시아지역 주요 핀테크 서비스 목록 >

서비스명	국가	금융분야	서비스 내용
Bankguard	일본	뱅킹	그림기반 보안카드
Wing	캄보디아	송금	휴대폰 기반 간편송금
IDGate	대만	뱅킹	거래내역 확인기반 인증
Fastacash	인도,싱가폴	송금	P2P 송금
Otonomos	싱가폴	주식거래	블록체인기반 전자주식 발행 및 관리 플랫폼
Sixscape	싱가폴	뱅킹	IPv6 보안 환경 구축
Cryptosigma	싱가폴	송금	블록체인 기반의 P2P 송금 플랫폼
Dragon Wealth	싱가폴	자산관리	integration-free플랫폼
Crowdo	싱가폴	크라우드펀딩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TradeHero	싱가폴	주식거래	집단지성 기반 투자정보 분석 앱
BetSTrading	싱가폴, 인도	주식거래	원스탑 온라인 플랫폼
Unikeh	인도	뱅킹	접근제어 인증
Creditseva	인도	자산관리	신용도 관리 플랫폼
Kashmi	인도	결제	P2P 모바일 결제 플랫폼
KyePot	인도	뱅킹	소셜 대출 플랫폼
SkolaFund	인도	펀딩	크라우드펀딩, 장학금, 학자금대출
Ayannah	필리핀	송금	송금서비스
Vmoney	필리핀	결제	결제 플랫폼
PawnHero	필리핀	대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전당포
2C2P	태국, 싱가폴	결제	결제처리 솔루션
CapitalMatch	말레이시아	대출	P2P 대출
Atcipher.com	홍콩	클라우드	클라우드 스토리지(Dropbox) 파일암호화
Bitspark	홍콩	뱅킹	비트코인

금융보안원

제 목	2. 일본의 핀테크 최신동향(日本の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		
연 구 자	KPMG	발표일	2016.10
개 요	- JPX가 분산 대장 기술에 워킹 페이퍼를 공표. 2016년 8월 30일 일본 거래소 그룹(JPX) 일본 아이비엠 주식회사(일본 IBM),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 (NRI) 및 카렌포트 주식회사 등과 실시 해온 블록체인 / 분산대장기술(DLT)에 관한 실증실험(PoC)의 결과를 워킹페이퍼로 공표했다. 일본IBM은 Hyperledger를 이용한 PoC, NRI 및 카렌항구사와 Ethereum 계의 '컨소시엄 / 개인형'DLT 규격을 이용한 PoC하고, 둘 모두 국내 금융 기관 6개사가 참가했다. - 일본은행, 제1회 FinTech 포럼을 실시 - 정보보안을 테마로 2016년 8월 23일 일본은행(BoJ)은 정보보안을 주제로 제1회 FinTech 포럼을 개최했다. 주요 금융기관과 핀테크 벤처, IT 기업이 생체 인식 기술이나 블록 체인을 이용한 금융 시장에서 안전 대책에 대해 강연 및 회장과의 Q&A를 실시했다. BoJ는 "결제 시스템 포럼」, 「소매 결제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핀테크를 불러 왔지만, 4월에 설치한 FinTech 센터를 사무국으로 이번 FinTech 포럼을 실시했다. - 일본의 금융 기관 등에 관한 주요 동향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이 Coinbase에 출자 2016년 7월 7일(현지 시간) 미국의 가상 화폐 교환소 동전베이스는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BTMU)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 미츠비시 UFJ 캐피탈 벤처의 미국 Sozo Ventures가 총 1,050 만 달러 (로이터 등 보도)을 Coinbase에 출자했다. Coinbase는 2012년에 창업하여 현재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진출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휴를 통해 Coinbase은 BTMU와 함께 아시아의 중요한 시장인 일본 시장 개척에 지원하고 있다.		

KPMG

日本の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

2016年10月

JPXが分散型台帳技術についてワーキングペーパーを公表

2016年8月30日、日本取引所グループ（JPX）は日本アイ・ビー・エム株式会社（日本IBM）、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NRI）およびカレンシーポート株式会社等と実施してきた、ブロックチェーン／分散型台帳技術（DLT）に関する実証実験（PoC）の結果をワーキングペーパーとして公表した。

日本IBMとはHyperledgerを用いたPoC、NRIおよびカレンシーポート社とはEthereum系の「コンソーシアム／プライベート型」のDLT規格を用いたPoCを行い、いずれも国内金融機関6社が参加した。

3ページに続く。

日本銀行、第1回FinTechフォーラムを実施-情報セキュリティをテーマ

2016年8月23日、日本銀行（BoJ）は情報セキュリティをテーマに、第1回FinTechフォーラムを開催した。大手金融機関やフィンテックベンチャー、IT企業が生体認証技術やブロックチェーンを用いた金融市場における安全対策について講演および会場とのQ&Aを行った。

BoJは「決済システムフォーラム」、「リテール決済カンファレンス」といった題名でフィンテックを取り上げてきたが、4月に設置したFinTechセンターを事務局として今般FinTechフォーラムを実施した。

金融庁、「金融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設置

7月28日、金融庁で金融審議会「金融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WG）の第1回が開催された。

同WGではITの進展により、規制領域をまたがるサービス等の展開の余地が拡大していることから、業務横断的な規制体系の構築、および顧客からの委託に基づき銀行等と利用者の間に立っ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中間的業者が登場していることから、中間的業者に係る規制のあり方について検討していくとしている。

こうした規制に注目すべき関係者は誰か？

本レポートは以下の関係者にとって興味深い内容である

- フィンテック・ベンチャーへの投資に興味を持つ銀行と銀行持株会社
- 規制下に置かれるフィンテック企業、または銀行との提携を望むフィンテック企業
- 日本におけるフィンテック業界の発展をより良く理解することを望むフィンテック業界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

日本のフィンテックまとめ

- JPXがブロックチェーンに関するワーキング・ペーパーを公表
- 日本銀行が生体認証およびブロックチェーンをテーマとするフォーラムを開催
- 金融庁が業務横断的な規制体系の構築と中間的業者について議論する金融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設置
- 仮想通貨取引所が16億円超の資金調達
- カード不要のクレジット決済サービスを提供する企業が15億円を超える資金調達

©2016 KPMG AZSA LLC, a limited liability audit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Japanes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Law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日本の金融当局等に関する主な動向

金融庁

「決済高度化官民推進会議」を設置

2015年末、金融審議会「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でとりまとめた課題（アクションプラン）の実施状況を官民連携してフォロー・意見交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設置。（2016年6月）

金融審議会「金融制度ワーキング・グループ」を設置

1ページ参照。

仮想通貨に係る消費税の取扱いの整理要望

金融庁は2017年度税制改正要望で、仮想通貨の購入が消費税の対象になるかどうかを整理するよう求めた。仮想通貨の購入は、現行法では消費税法上の非課税対象と規定しておらず消費税の課税対象となっている。

日本銀行

日本銀行、第1回FinTechフォーラムを実施-情報セキュリティをテーマ

1ページ参照。

政府

日本再興戦略に人工知能、フィンテック

安倍総理大臣を本部長とする日本経済再生本部は2016年6月2日、「日本再興戦略2016―第４次産業革命に向けて―」を取りまとめた。

その中で、具体的施策として、人工知能技術の研究開発と社会実装の推進、FinTechをめぐる戦略的対応、キャッシュレス化推進などを盛り込んだ。

イノベーション：日本の金融機関が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実証実験を海外で実施

2016年8月22日、株式会社三菱東京UFJ銀行と株式会社日立製作所（以下、日立）は、シンガポールにおいて、小切手の電子化を対象とした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活用の実証実験を開始すると発表。具体的には、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を用いて電子小切手の振出しや譲渡、取立てを行うシステムを共同で開発し、三菱東京UFJ銀行が当該小切手の発行・決済を行い、日立グループの複数拠点で小切手の受取りや取立てを実施。両社は、本実証実験を通じて、技術・セキュリティ・業務・法制度など、さまざまな観点から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における課題を抽出する。

大規模な資金調達が相次ぐ日本のフィン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

仮想通貨取引所、1,600万ドル調達

シンガポールなどで仮想通貨取引所を運営するQUOINE JAPANはジャフコをリードインベスターとした、総額1,600万ドルの第三者割当増資を実施した。QUOINEは本社機能を日本に移しビジネス拡大を図るほか、仮想通貨の取引用エンジンを金融機関、FX事業者等へOEM提供することとしている。

カード不要のクレジットサービス、1,500万ドル調達

カードのいらないクレジットサービス「Paidy」を提供する、株式会社エクスチェンジコーポレーションは、SBIインベストメントやEight Roads Ventures Japanをリード投資家として、シリーズB ラウンドで第三者割当増資により、総額1,500万ドルの資金調達を完了した。

日本におけるフィン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企業会社概要

QUOINE JAPAN

会社概要

QUOINEはシンガポールで設立された仮想通貨取引所運営会社。2014年にQUOINE JAPANを設立し、現在は東京に本社機能を移している。対応仮想通貨はBitcoinおよびEthereum（ETH）。信用取引、先物取引、貸出（ETHは不可）も可能。日本において仮想通貨に関する法律が成立したことから証券会社やFX会社による市場参入を見越し、B2Bでの取引エンジン提供業務にも力を入れる。

本社：日本・東京
キーパーソン：栢森加里矢（CEO）、マリオ・ゴメス・ロサダ（CTO）
ホームページ：https://www.quoine.com/
創立：2014年
所有権：プライベート

エクスチェンジコーポレーション

会社概要

エクスチェンジコーポレーション（ExCo）は日本の60万店舗を超える加盟店にカードのいらない決済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利用者は、メールアドレスと携帯電話番号を使用するだけで、オンラインショッピングができ、当月の利用総額を翌月まとめて支払うことができる。独自のモジュールと機械学習を用いることで、数秒以内で審査が完了し、加盟店への支払いはExCoが保証。

本社：日本・東京
キーパーソン：ラッセル・カマー（CEO）
ホームページ：https://paidy.com/en
規模：20億円以上
創立：2008年
所有権：プライベー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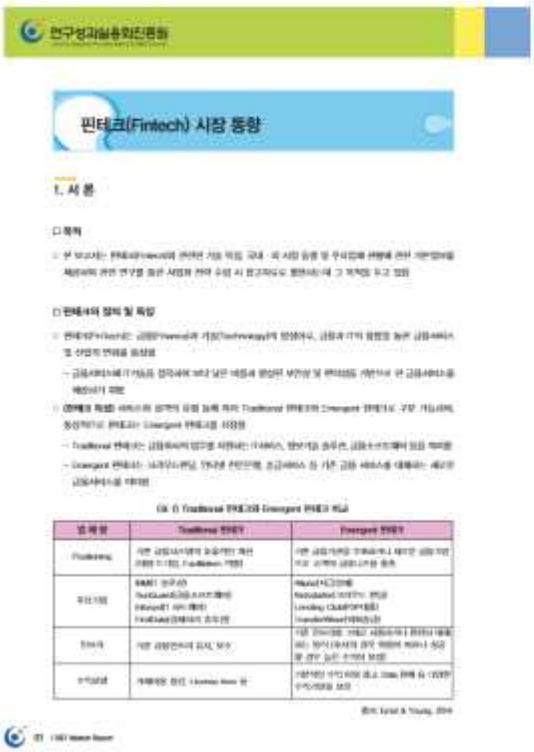
©2016 KPMG AZSA LLC, a limited liability audit corporation incorporated under the Japanes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Law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제 목	3.핀테크의 최신동향과 이후 가능성(FinTechの最新動向と今後の可能性)		
연 구 자	丸山弘毅	발표일	2016.11.9
개 요	- 현금주의. 향후거래의 전자화(데이터화)에. 자산의 시각화와, 투자 확대 - 일본 특유의 효과 일례로 금융 시장의 확대·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일본판 금융포섭)		

3.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제 목	4. 핀테크(Fintech) 시장 동향		
연 구 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발표일	2016.12
개 요	- 목적 본 보고서는 핀테크(Fintech)와 관련한 기술 특징,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주요업체 현황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를 통한 사업화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핀테크의 정의 및 특징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 금융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핀테크 특징) 서비스와 성격의 유형 등에 따라 Traditional 핀테크와 Emergent 핀테크로 구분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핀테크는 Emergent 핀테크를 지칭함 - Traditional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함 - Emergent 핀테크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서비스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4.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 사례 조사(자료 샘플)



제 목	5. 확대되는 핀테크 사업의 지평(広がるFinTechビジネスの地平)		
연 구 자	服部直樹	발표일	2017.6.9
개 요	○ FinTech의 주요 분야 중 본고에서는 ① 금융 기관 업무 지원, ② 보안, ③ 자산 운용, ④ 주택 금융, ⑤ 대출 5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 각 분야에서 ① 소셜 데이터 분석, ② 범용 디지털 ID, ③ 로보 어드바이저 2.0 ④MortgageTech 주택 자산 투자, ⑤ 안반쿠토 대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FinTech 사업은 기존의 대형 금융 기관의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스타 토앗뿌 기업에 대한 제휴 나 인수의 움직임이 가속 될 수 있다. 이처럼 FinTech 사업은 신생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 분야에서 매일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FinTech 사업은 기존의 대형 금융 기관의 진출이 최근 1 ~ 2 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생 기업이 대기업 금융 기관의 IT 벤더 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 한 FinTech의 각 분야 중 금융 기관 업무 지원 보안 분야의 생체 주택 금융 분야의 MortgageTech을 다루는 신생 기업은 물론 주요 금융 기관에 대한 기능 제공을 주목적으로하는 BtoB 유형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보안 분야의 범용 디지털 ID 자산 운용, 주택 금융 분야의 주택 자산 투자, 대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신생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toC 유형의 전략이 많다. 향후 이러한 BtoC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금융 기관에 의한 기술과 시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제휴 나 인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망한 신생 기업에 대한 제휴 나 인수를 실행하기 위해 어느 때보 다 속도감있는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5. 広がるFinTechビジネスの地平

MIZUHO　みずほ総合研究所

One MIZUHO

みずほインサイト　業 務　2017年6月9日

広がるFinTechビジネスの地平
主要分野の事例からみるFinTechの最新動向

ニューヨーク事務所支店エコノミスト
服部直樹
+1-212-282-3202
naoki.hatori@mizuhcbus.com

○FinTechの主要分野のうち、本稿では、①金融機関業務支援、②セキュリティ、③資産運用、④住宅金融、⑤融資、の5つに注目し、具体的な事例をもとに最新動向を紹介する。
○各分野において、①ソーシャル・データ分析、②ユニバーサル・デジタルID、③ロボ・アドバイザーとも、④Mortgage Tech・住宅資産投資、⑤アンバンク向け融資、など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
○FinTechビジネスでは既存の大手金融機関による参入が急速に進んでおり、今後は、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企業に対する提携や買収の動きが加速する可能性がある。

金融サービスと高度な IT 技術が融合したFinTechでは、スタートアップ企業を中心に新たなプロダクトが次々と開発され、ビジネスがますます広がりをみせている。本稿では、FinTechの主要な分野のうち、①金融機関業務支援、②セキュリティ、③資産運用、④住宅金融、⑤融資の分野について、それぞれ具体的な事例をもとに最新動向や注目点を紹介したい（図表1）。

図表1　本稿で紹介するFinTechビジネスの分野と内容

分野	内容
①金融機関業務支援	・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の情報や、金融機関が保有する顧客取引データに基づく人的つながりの情報を分析し、与信判断やプロモーションに活用。
②セキュリティ	・生体認証：オンラインや電話などで本人確認を行う際の生体認証方法を改善・高度化し、ID（ID）を利用。登録手続に関する。 ・ユニバーサル・デジタルID：複数の異なる使用環境を統合したデジタルIDを使用。一つのデジタルIDを用いて、様々なウェブサイトや携帯端末上の認証を行うデザインを用意。
③資産運用	・ロボ・アドバイザーとは：人工知能を活用し、個人投資家の情報を基に取引の提案や運用を行うもの。人間のフィナンシャル・アドバイザー同様の高度なアドバイスを提供。 ・ソーシャルとは：他人に比べながら資産運用を行うプラットフォームを提供し、資産運用の経験が乏しい投資者へ投資家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
④住宅金融	・Mortgage Tech：ビッグデータ・ツールなどを用いて行う住宅ローンの審査・組成手続の簡素化やスピードを高度なウェブサイトでの利用に集約できるように、住宅ローン申請を簡素化。 ・住宅資産投資：個人の住宅資産の一部に投資し、将来の住宅価格上昇が値ローン金額を得るビジネスモデル。金額を受け取る側には、将来の住宅価格が下落の一部を補償にするものに、住宅ローン残額を得ようつ資産を住宅を購入できるようにするビジネスもある。
⑤融資	・既存の銀行サービスを受けられないアンバンクの者に携帯電話の利用履歴や情報を提供し、本人の信用インセンティブを高めるとともに、新しい融資を提供。

（資料）みずほ総合研究所作成

1. 金融機関業務支援：ソーシャル・データ分析の台頭

金融機関業務支援は、既存の金融機関に対し、与信判断やプロモーションといった本業の業務を効率化するプロダクトを提供する分野である。FinTechビジネスにおいて、既存の大手金融機関の存在感が増すにつれ、そうした金融機関にプロダクトを提供するBtoBタイプのスタートアップ企業に対する注目度も高まっている（服部（2017））。とりわけ、発足で関心が集まっているのは、顧客の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の情報や、顧客取引データに基づく人的つながりの情報といったソーシャル・データを分析し、その結果を金融機関の与信判断やプロモーションに活用する動きである。

例えば、米国のカリフォルニア州を拠点とするスタートアップ企業のBeyond Analytics[1]は、SNSの情報をもとに個人向け与信判断を行うプロダクトを開発した。顧客がオンラインでローンやクレジットカードなどの申請を行う際に、SNSのアカウントを用いてログインをする。同社のシステムが顧客のSNSアカウントから公開プロフィール、友人リスト、過去の投稿などの情報を取得し、当該者の「信頼度」といった情報を自動的に分析する。そうして、顧客の信用度を推計し、ローンやクレジットカードなどの申請可否を判断する仕組みである。

なお、SNSの情報を用いて与信判断を行うアイデアは数年前から存在し、実際に中小企業向け融資ではそうした情報が積極的に活用されてきた。一方、米国で個人向け与信判断にそうした情報を用いるにあたっては、顧客の人種・性別・年齢といった属性による差別を禁止する信用機会平等法（Equal Opportunity Credit Act、ECA）などの各種規制に抵触する必要があり、米国において SNS の情報を活用した個人向け与信判断は不人気となっていた。Beyond Analytics社、同社のソーシャル・データ分析アルゴリズムを用いた与信判断が人種・性別・年齢に依存していないことを統計的に示しており、こうした規制のもとでSNS情報を個人向け与信判断に活用することを可能とした。

一方、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で2013年に設立されたLaborwatch[2]は、SNSの情報ではなく、金融機関が保有する顧客の顧客取引データから顧客間の人的つながりを分析するプロダクトを開発した。同社は、過去2～3年分のクレジット・デビットカードの取引データ（顧客番号、利用店舗番号、利用額、利用時間）などをもとに、顧客間の人的つながりを推計するとしている。顧客間の人的つながりは、三次元空間の点と線の図（ソーシャル・グラフと呼ばれる）として可視化され、どの顧客が多くの人的つながりをもつかが一目瞭然となる。こうした分析結果をもとに、他者への影響度が大きい顧客に対し集中的にプロモーションを行い、顧客獲得費用の効率化を図る仕組みである。

2. セキュリティ：生体認証からユニバーサル・デジタル ID へ

（1）生体認証

セキュリティ分野では、日々、オンラインなどで本人確認を行う際の生体認証方法を改善することで、成りすましを効率的に防止するプロダクトの開発が盛んである。

例えば、米国のカリフォルニア州を拠点とするJumioのプロダクトは、運転免許証などの写真付き身分証明書を用いたオンラインの本人確認で、スマートフォンのカメラを使用した顔認証を行う。その際、他人の顔写真などを不正に用いた成りすましを防止するため、数秒間の動画撮影により顔の動きや

6. 今後の展望

このように、FinTechビジネスでは、スタートアップ企業が中心となり、各分野において様々新たなプロダクトが生み出されている。ただ、FinTechビジネスでは既存の大手金融機関による参入が ここ1～2年で急速に進んでいる。それに伴って、スタートアップ企業が大手金融機関のロードンダー化する動きがある。

本稿で紹介したFinTechの各分野のうち、金融機関業務支援、セキュリティ分野の生体認証、住宅金融分野のMortgage Techを手がけるスタートアップ企業は、もともと大手金融機関に対する機能提供を主眼とするBtoBタイプの戦略をとっている。一方で、セキュリティ分野のユニバーサル・デジタルID、資産運用、住宅金融分野の住宅資産投資、融資の分野では、そのところスタートアップ企業が顧客に直接サービスを提供するBtoCタイプの戦略が多い。

今後は、これらBtoCタイプの企業に対しても、大手金融機関による技術や市場の獲得を目的とした提携や買収が活発化する可能性が高い。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企業に対する提携や買収を行うにあたっては、これまで以上にスピード感のある意思決定が求められることとなる。

【参考文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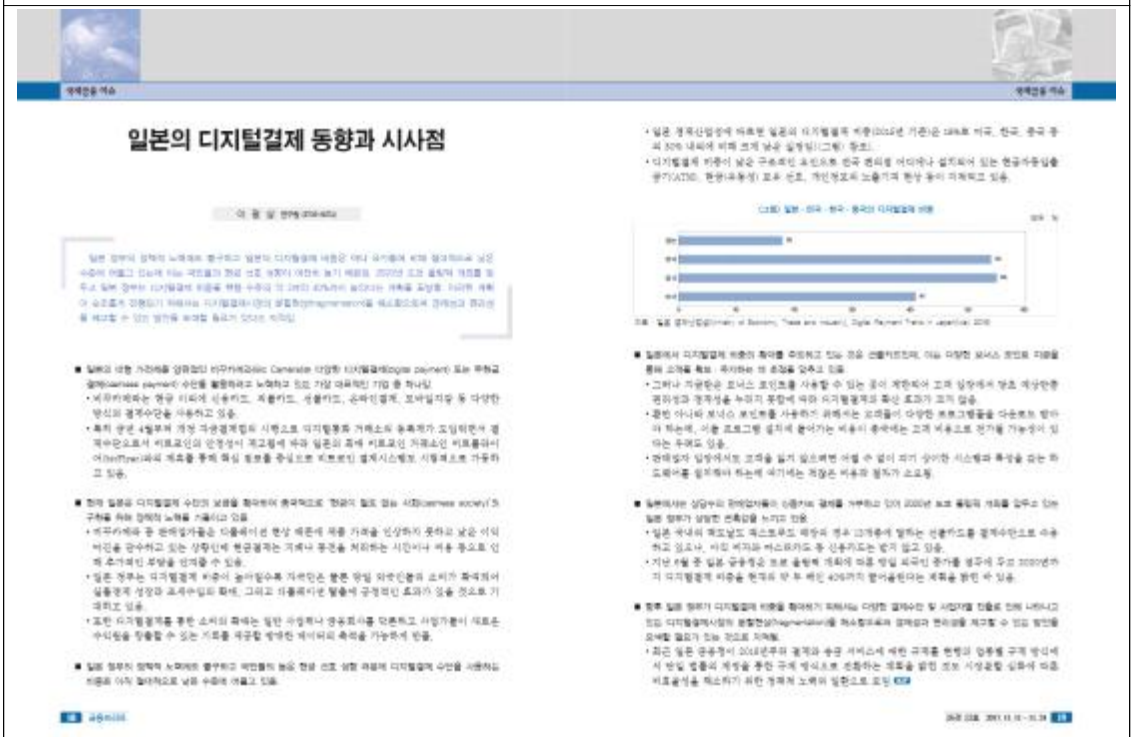
A.T. Kearney (2016), "2016 Future of Advisor Study: We Investors Will Never Be the Same", Jun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6), "Payday Loans and Deposit Advance Products", April 24
Demirguc-Kunt, Asli, Leora F. Klapper, Dorothe Singer, and Peter Van Oudheusden (2015)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4: Measuring Financial Inclusion Around the World",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7255, April 15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16), "2017 FDIC National Survey of Unbanked and Underbanked Households", October 20
藤井英史・新村勲（2015）「米国における金融プライバシーを巡る最近の動向」みずほ総合研究所『みずほ3月レポート』12月30日
服部直樹（2016）「変革が進む米国資産運用ビジネス」みずほ総合研究所『みずほインサイト』3月18日
服部直樹（2017）「変化するFinTechビジネス」みずほ総合研究所『みずほインサイト』1月24日
みずほ総合研究所（2016）『基本知識から目標・ポイントで分かるフィンテック』近代セールス社

1 Beyond Analytics は、2017年4月に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のサンノゼで開催された Pioneers Spring（FinTech企業のビジネス・プレゼンテーション・イベント）において、数種しかない他のFinTech関係の投資によって選出される Best of Show に選ばれた。なお、参考する Alphaneal、SpeedPro、Bestandle of Lab、Nuiva も同様である。
2 中西敏（2016）「既存の審査でなく SNS 情報を使う新型人間査」日経ビジネス、2月8日
3 Dwoskin, Tobias and Deepa Seetharaman (2016), "Facebook Data Is Used to Judge Your Credit (After All)",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4
4 詳細は、同社ウェブサイトに掲載されている Fair Lending Analysis を参照されたい。
（http://www.beyondanalytics.com/fair-lending-analysis/?utm=home-page.html）
5 例えば、同社ウェブサイトでは、金融機関顧客向け個人間ローン、消費者向けローンサービスを提供するウェブサイト Tata.com のログインを代行しているケースが紹介されている。

6 Hindemia, Mary, Brian Parsons, and Lalitha Gopal (2017), "Capital One Points Into Digital ID, Aims to Leverage IOT Experts", American Banker, Mar 13.
7 同社は、あらゆるソフトウェアから別のソフトウェアの機能を呼び出して利用するための機能群のことを指す。詳細はみずほ総合研究所（2016）を参照されたい。
8 金融機関が関連会社であるか、第三者企業か顧客の個人情報を保有する場合、グラム・リーチ・ブライリー法に基づき、金融機関は顧客がサイト、アプリ（個人情報機関の相応）を行う場合を規制する必要がある。Capital One の場合は、顧客が（例）を通じて同社アプリにログインする際、Capital One は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情報分類基準を満たすこととなっており、それによって同意に対応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なお、米国における金融プライバシーの詳細については、藤井・新村（2015）を参照されたい。
9 Pasot, Jacob (2017), "IDN Teams with FinTech to Deliver Digital Mortgage Platform", American Banker, February 15
10 Nuiva が取得した顧客の35%を回収する事業、残金が引き継に対する Nuiva の取引が約31%となる。Nuiva の回収率が約 11.4%の場合、Nuiva の取引金額は 35%となる。住宅資産投資が下落した際の最大損失額は、同様に それぞれ 10%、11.70%となる。
11 これによって、Nuiva のサービスを利用した人は、投資家の住宅を使用して Nuiva に投資金を貸上げ（貸の一部を売却）し、Nuiva との間の金額を清算する必要がある。Nuiva は、出資から清算までの期間を（一定）早く都度している。売買を繰り返す場合は、同期間中に Nuiva に対し出資金を貸上げることによる収益の一部を支払い、Nuiva の所有権をパーチャンする。
12 中西敏（2016）「既存審査がスコアを算出の小さな人々でもスコアを与えられるFinTech企業」Tipro、6月1日
13 Popescu, George (2016), "Thanks to Technical Innovation, Perfect Raises $15.2Mil For Mobile Bank", Lendico (Tipro), Feb 23 によれば、Perfect は7ンドロイドを搭載したスマートフォンにファームウェアのシールドでエンジン機能をインストールしている。したがって、スマートフォンの開発化などによりセンサーを解析することは困難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情報センサー機能を備えることで、Perfect はスマートフォンの持ち歩きや動きなどによる新しい金融業務に対応す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とされる。
14 Kirsa, James E. (2016), "Can No Credit? Perfect Will Finance Your Phone - But Turn It into a Brick If You Don't Pay", Los Angeles Times, December 2
15 ゲーミフィケーション（Gamification）とは、レベルやセッションといったゲームの要素をサービスに盛りこし、顧客に金融のつき合いかたやデータの利用を促すことをいう。

제 목	6.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연 구 자	이광성	발표일	2017.11.11
개 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디지털결제 비중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현금 선호 성향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 두고 일본 정부는 디지털결제 비중을 현행 수준의 약 2배인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표방함. 이러한 계획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결제시장의 분할현상(fragmentation)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향후 일본 정부가 디지털결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제수단 및 사업자별 진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결제시장의 분할현상(fragmentation)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최근 일본 금융청이 2018년부터 결제와 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현행의 업종별 규제 방식에 서 단일 법률의 제정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힌 것도 시장분할 심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6.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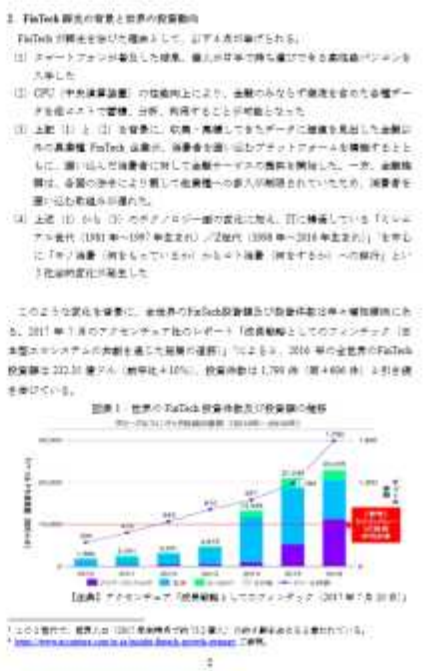
제 목	7. 일본의 핀테크 동향에 관한 고찰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연 구 자	志波和幸	발표일	2018.1.31
개 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FinTech는 "Finance(금융)」과 Technology(기술)"을 합쳐놓은 조어로, 일반적으로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킨다.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4월로 제임스 다이몬(JP 모간 체이스 CEO)에 따르면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편지에 "Silicon Valley is Coming"는 FinTech 기업이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에 위협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FinTech 관한 서적·잡지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2016년 IT업계의 버즈워드로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3년이 지난 FinTech기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대처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투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에 대해 탐구한다.		

7.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Newsletter

わが国の FinTech 動向に関する一考察

～ブロックチェーンを用いコスト削減を急ぐ本邦金融機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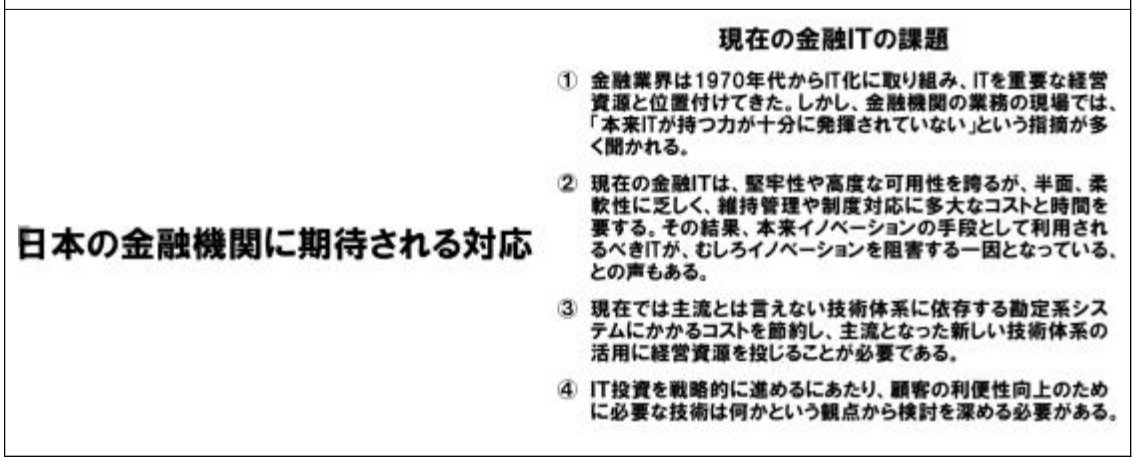


제 목	8.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5.0>과시사점)		
연 구 자	장우애	발표일	2018.8.4
개 요	□아베정부는 '17.6월 성장전략 로드 맵을 제시하며 'Society5.0'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창 ㅇ 'Society 5.0'은 '13년부터 고안된 성장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가운데 등장 한 개념으로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中 '성장전략의 2017년 버전' - '13년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①통화정책, ②재정 정책, ③성장전략 '세 개의 화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경제정책(①통화정책, ②재정정책)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③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방침 ㅇ 'Society 5.0'은 4차 산업 기술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령화, 구인난, 자연재해, 공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자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성장 로드맵 - 기존 전략들과 달리 사회 경제 패러다임 전환(Society 5.0 사회구현)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기할만한 점 □ 일본이 성장전략 수립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취사선택(取捨選擇)하여 우리경제·산업 전략수립에 참고 할 필요		

8. 아베의성장로드맵 <Society5.0>과시사점)

제 목	9. 일본의 핀테크와 가상화폐에 관한 최신동향 日本におけるFinTechと仮想通貨を巡る最新動向)		
연 구 자	岩下直行	발표일	2018.6.30
개 요	□ 일본의 금융 기관에 기대되는 대응 ① 금융업계는 1970년대부터 IT화에 대응하며 IT기술을 중요한 경영자원의 한 부분으로 편재시켜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 현장에서는 "본래 IT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현재 금융 IT기술들은 안정성과 가용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반면 유연성이 부족하고, 유지 관리 및 제도 지원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본래 혁신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권고해오던 IT기술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③ 현재는 주류라고 말할 수 없는 기술 체계에 의존하는 계정계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주류가 된 새로운 기술체계의 활용에 경영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④ IT투자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9. 日本におけるFinTechと仮想通貨を巡る最新動向)



제 목	10. 핀테크 가상화폐 비지니스의 최신동향 FinTech, 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연 구 자	岩下直行	발표일	2018.6.30
개 요	FinTech (이하 핀테크)의 출현형태로 나타난 가상통화(암호화 자산)은 2016년부터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등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세에 큰 영향을 받아 폭락을 하거나, 여러 다양한 범죄 등으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와 가상통화를 양 주제를 가지고 최신 동향을 고찰한다.		

10. FinTech, 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一般記事 講演抄録

FinTech, 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京都大学 公共政策大学院
教授
岩下 直行

1. はじめに

FinTech（以下，フィンテック）の一出現形態となった仮想通貨（暗号資産）は，2016年頃から日本でも多くの人が投資を行うようになり流行しているが，一方で相場の大きな波を受けたり，さまざまな犯罪等も起きている。本稿では，フィンテックと仮想通貨を二大テーマとし，最新動向を考察する。

2. フィンテック

(1) シリコンバレーからの挑戦者 ～フィンテック企業の勃興

日本では30年ほど前に今でいう全国銀行データ通信システムがつくられるなど，ファイナンスとテクノロジーは密接に関連していた。「フィンテック」とは，金融を表すファイナンスと技術を表すテクノロジーを合わせた造語であり，米国の金融業界では2000年代前半から使われていた。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のは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世界中の金融機関が金融危機のもとで取引を慎重化させていたこともあり，新しい金融サービスを提供する米国シリコンバレー発祥のITベンチャー企業が出現し，新たな金融の担い手の役割を果たすようになった。

フィンテック企業は，ペイメント（お金を決済する）やレンディング（お金を貸す）を強うところが7割くらいを占めている。例えば，ペイメントの中で最も老舗企業のPayPalは，自らが金融機関間を接続するネットワークインフラや端末機器を持たず，決済のための仕組みの全て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構築している。伝統的な金融機関がシステムインフラの維持管理に膨大な費用を投じているのに対し，PayPalはコスト面で圧倒的に有利な立場にあり，金融業界の深刻な脅威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一方レンディングの中で比較的老舗企業のLendingClubは，自ら融資を行うのではなく，貸し手と借り手とをマッチングさせて手数料を稼ぐ「マーケットプレイス・レンディング」というビジネスを展開している。伝統的な金融機

表1 日米の注目フィンテック企業の業務領域の違い

サービス分野		業務内容	米国の主なフィンテック企業	日本の主なフィンテック企業
伝統的な銀行と融合する領域	融資	・Web上で貸し手と借り手を募り，信用格付け等を実施して，両者をマッチングするサービス。P2Pレンディング，ソーシャルレンディングとも呼ばれる。	LendingClub, Prosper, Kabbage,	Maneo,
	決済	・スマートフォン等を利用して個人間送金やクレジットカード決済を行うサービス。伝統的に多くのフィンテック企業が参入してきた。	PayPal, Stripe, Square	LINE Pay,
伝統的な銀行と連携していく領域	PFM	・本人の承諾のもとで多くの銀行の口座情報を集約し，顧客の資産を分かりやすく管理するサービス。	MX, Mint	マネーフォワード, Zaim, マネーツリー
	会計サポート	・小規模企業向けに，売掛金・買掛金・固定資産等の管理，請求書作成，給与・報酬支払いといった経理，税務等のサポートを行うサービス。	Xero, ZenPayroll, Zenefits	マネーフォワード, freee, メリービズ
	ロボアドバイザ	・個人の証券投資等への助言やポートフォリオの組成をソフトウエアで行うことにより，安価に提供するサービス。	Motif Investing, WealthFront, Betterment	お金のデザイン, ZUU, Finatext

間が果たしていた役割を奪う典型的な「中抜き（disintermediation）」ビジネスであり，個人向け融資の分野では，銀行の強力なライバルになりつつある。

インターネットがなかった時代は，事業者が通信プロトコルや端末仕様を定め，システムインフラから業務プログラムまで全てを設計して構築し，莫大な費用が必要であるため，大企業が綿密な事業計画を立てて長期プロジェクトを遂行する必要があった。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した現代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安価に提供されるシステム基盤を利用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小規模なベンチャー企業がさまざまなビジネスのトライアルを行うことが容易になった。それが金融分野まで及んできたというのがフィンテックだと考えられる。

(2) 日本の金融機関に期待される対応

日本の金融業界は1970年代からIT化に取り組み，ITを重要な経営資源と位置付けてきたが，金融機関の業務現場では，「本来ITが持つ力が十分に発揮されていない」という指摘が聞かれる。堅牢性やセキュリティー，可用性を誇るが，一方で柔軟性に乏しく，維持管理や制度対応に多大なコストと時間を要するため，本来イノベーションの手段であるべきITが，むしろイノベーションを阻害する一因となっている。

また，日本の銀行はIT投資の8割を維持管理に使い，新規投資は2割しか使われておらず，米国に比べ新規投資の比率が少ない。これにより，いろいろな意味で支障がでてくるため，オープンネットワークの利用を前提とした新しい技術を取り入れたり，マルチベンダーでさまざまなビジネスを行うことが必要だろう。

現在，日本のフィンテック企業の業務は「銀行と連携していく領域」だが，米国のフィンテック企業は「銀行と融合する領域」であるという違いがある（表1）。2018年6月，日本でもLINE株式会社がPayPalと同様に無料で送金できる「LINE Pay」事業を拡大しようと，

제 목	11. 무현금 사회 로드 맵 2019(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2019)		
연 구 자	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	발표일	2019.4
개 요	“캐시레스 로드맵 2019”은 세계의 무현금 사회의 동향과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한 일본의 무현금 사회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무현금(신용결제)사회 즉 10년 후의 '무현금 사회의 미래상'을 제기하고 소비자, 가게, 결제사업자, 행정·지자체 등 모든 관계자가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배경 및 목적] 일본의 캐시리스에 사회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경제산업 성이 2018년 4월 11일에 발표 한 "캐시레스 비전 1"과 내각관방성이 2018년 6월 5일에 발표 한 "미래 투자 전략 2018 '이 근간으로 존재한다.		

11. FinTech, 仮想通貨ビジネスの最新動向

PAYMENTS JAPAN
一般社団法人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

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 2019

GO! CASHLESS 2020

2019年4月

一般社団法人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

はじめに

本書「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 2019」は、世界のキャッシュレス動向や、動き出した日本の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現状を整理の上、キャッシュレス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10年後の「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将来像」を提起することを通じて、消費者、店舗、決済事業者、行政・自治体等の全てのキャッシュレスに関するステークホルダーが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実現に向けた活動を加速するための方向性を示したものである。

【キャッシュレス推進の背景と目的】

我が国のキャッシュレスにかかる活動が加速している。その背景には、経済産業省が2018年4月11日に公表した「キャッシュレス・ビジョン[1]」及び内閣官房が2018年6月5日に公表した「未来投資戦略 2018」が根幹として存在する。

「キャッシュレス・ビジョン」では、日本国際博覧会（大阪・関西万博）が開催される2025年までにキャッシュレス決済比率を40%とする目標を設定した上で、将来的には世界最高水準の80%を目指すとした「支払い方改革宣言」が提示された。また、「未来投資戦略 2018」では、イノベーションの社会実装による「Society 5.0[2]」の実現により、経済成長とともに、人手不足や地域活性化、生産性向上など社会課題の解決へ繋げて行くことを目指し、「FinTech／キャッシュレス化の推進」が重点分野及びフラグシッププロジェクトのひとつとして位置付けられた。

これら2つの文書では、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の設立や事業者・消費者双方が受け入れやすいインセンティブ措置を含む、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包括的な検討を行うことと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流れを受けて、2018年7月に一般社団法人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会（以下、「当協議会」）が設立された。

また、本年10月の消費税率引上げに伴う経済対策において、需要平準化対策とキャッシュレスの推進策として、政府による「キャッシュレス・消費者還元事業」が予定されている。生産性向上や消費者の利便性向上の観点も含め、中小・小規模事業者におけるキャッシュレス決済手段を用いた支払に対するポイント還元等を支援することで、中小・小規模事業者における消費喚起の役割と事業者・消費者双方におけるキャッシュレスの促進が目的として掲げら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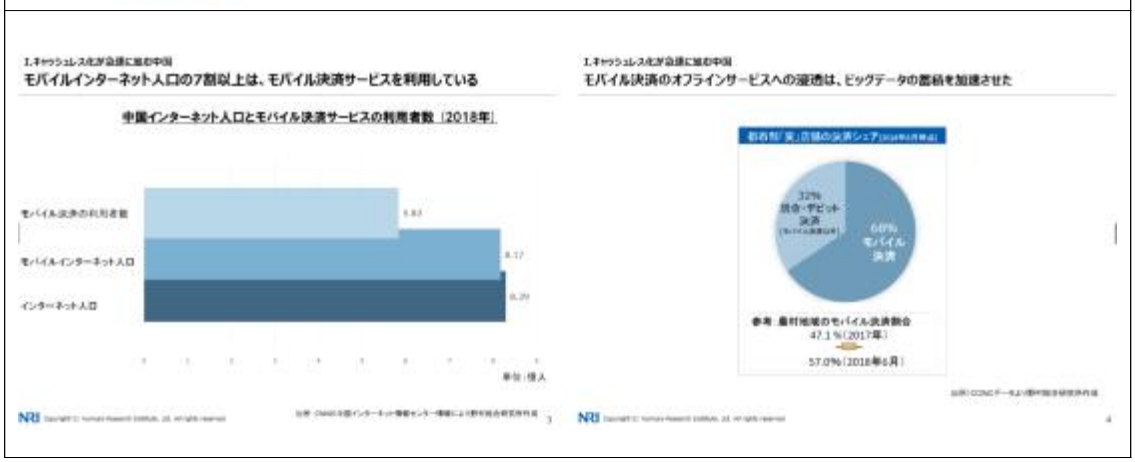
さらに2019年は、官民連携でキャッシュレスの認知・理解向上のための国民運動「GO! CASHLESS 2020（ゆくぞ！日本全国どこでもキャッシュレス）」の推進

[1] https://www.meti.go.jp/press/2018/04/20180411001/20180411001-1.pdf
[2] 日本が提唱する未来社会のコンセプト。「狩猟社会」「農耕社会」「工業社会」「情報社会」に続く、人間主とする新しい社会を指すキーワード。サイバー空間（仮想空間）とフィジカル空間（現実空間）を高度に融合させたシステムにより、経済発展と社会課題の解決を両立する、人間中心の社会。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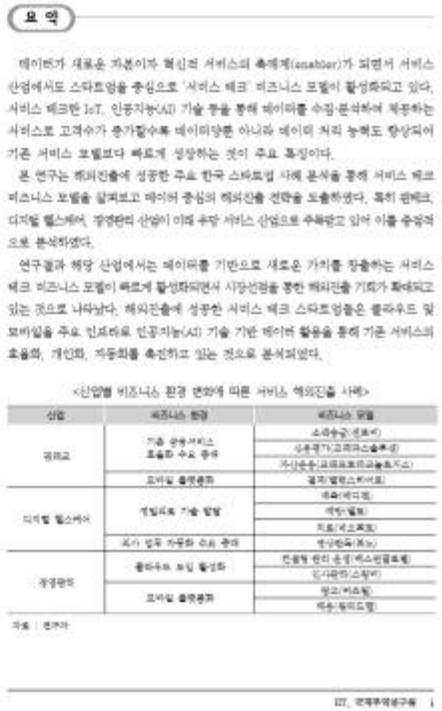
제 목	12. 중국 핀테크 최신동향에서 본 일본의 시사점 中国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と日本への示唆		
연 구 자	李智慧	발표일	2019.6.18
개 요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스마트화·디지털화에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방침 1] 출자나 제휴 등을 통한 FinTech 기업들의 4대 메이저 은행과 FinTech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사례 이외, 中信銀行이 百度와 합병하여 다이렉트 은행인 "百信銀行"설립하는 등 제휴사례가 늘고 있다. 【방침 2] 스스로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고도화 도모 招商銀行은 FinTech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여 솔선하여 微信銀行,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고 고객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고객 확보 등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12. 中国フィンテックの最新動向と日本への示唆



제 목	13.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연 구 자	김보경	발표일	2019.8
개 요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자 혁신적 서비스의 촉매제가 되면서 서비스 (enabler) 산업에서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서비스 테크란 Io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양뿐 아니라 데이터 처리 능력도 향상되어 기존 서비스 모델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에 성공한 주요 한국 스타트업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테크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데이터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경영관리산업이미래유망서비스산업으로주목받고있어이를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산업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테크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시장선점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에 성공한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및 모바일을 주요 인프라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AI)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효율화 개인화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서비스 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전략



융합연구총괄센터
General Center for Convergence Research

발행일 : 2019. 11. 15
발행처 :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 : 노 영 희 교수
작성자 : 정 근 하 박사